

온라인 게임포털 코게임, 사랑나누기 캠페인

“게임의 즐거움보다 더 큰 나눔의 즐거움”

“사랑나누기 아홉 번째, 회원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코퍼슨스의 온라인 게임포털 코게임(www.cogame.com) 홈페이지에는 분홍색 하트모양의 아이콘이 사랑스러운 날갯짓으로 회원들의 사랑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게임을 즐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베풂의 기회뿐 아니라, 소외되어 꿈을 펼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고 있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이다.



1%가 만들어 내는 ‘사랑나누기’

‘함께하는 더욱 즐거운’ 코게임은 웹 보드게임과 다양한 콘텐츠를 사랑하는 게임포털 사이트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열린 마인드’라는 경영방침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의 변함없는 사회 공헌’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04년, 코게임은 1%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나누기 캠페인의 첫발을 딤었다.

게임사이트라는 기업 특성에 맞게 코게임의 사랑나누기는 회원들의 결제 금액 중 1%를 코게임에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회원들의 직접 기부한 금액을 적립하여 후원하는 사랑나누기는 국내 최대의 민간 사회 복지기관인 ‘한국복지재단’과 ‘희망의 조산아’와 함께한다. 사랑나누기 캠페인의 후원 대상자는 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2004년 세 살 박이 백혈병 환우 제갈진양 돋기를 시작으로 뇌종양과 씩씩하게 싸우는 여섯살 재진이 등 어린이 환우 돋기 및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 전달,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추석맞이 happy 송편 만들기, 조산아 돋기, 소년가장 돋기 기금 모금 등 다양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외에도 작년 여름 수해를 입은 충북과 강원의 수재민들에게 코게임의 수해기금을 전달하였다. 현재 진행형인 코게임의 사랑나누기는 2007년 3월 현재, 9번째 사랑나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돼지띠의 해를 맞이하여 돼지띠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랑나누기 캠페인들은 꿈을 펼칠 기회 조차 없이 질병과 다투고 있는 아이들과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차례로 후원해왔다. 코게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적극적인 사회 공헌 캠페인을 모색 중에 있다.

코게임의 김재현 대표는 “사회공헌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변함없는 회원들의 사랑참여에 감사한다”고 전한다. 또한, ‘거창하지 않은 작은 사랑 이야 말로 사회의 미덕’이라며 변함없는 사랑 나눔의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오늘 게임보다 더 즐거운 코게임의 나눔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